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 실태 분석 :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 이용

손예동¹, 최혜선^{2*}

¹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9

Yedong Son¹, Hye-Seon Choi^{2*}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성행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차분석 연구로,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합표본 빈도와 백분율,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은 8.2%로 피임 방법은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성관계 경험은 학년, 학업성적, 경제상태, 거주형태, 스트레스, 평생 음주 및 흡연 경험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 .001$).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성행태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반영하여 성교육을 하는 것이 이들의 성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키워드 : 다문화, 성 경험, 성행태, 청소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exu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9. Complex-sampl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chi-square 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in SPSS 25.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8.2% reported having sexual experience. Condoms were the most commonly used contraceptive method, and most adolescents received sex education at school. Their likelihood of sexual experience differed according to grade, academic achievement, economic status, residential area, perceived stress, and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 ($p < .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ex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with appropriate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Adolescent, Cultural diversity, KYRBS, Sexual behavior, Sexual experi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와 혼인 귀화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은 총 25,053 가구이고, 이 중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1]. 과거에는 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 특히 결혼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낮은 결혼 생활 만족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충분한

*Corresponding Author : Hye-Seon Choi(hschoi@woosuk.ac.kr)

준비 없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여[2],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 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남편과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갈등이 있으며, 언어적인 문제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러한 주양육자의 문제는 자녀의 언어습득과 이해력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을 저하시킨다[4].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령전기인 자녀와 초등학생인 학령기 자녀가 77.2%,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기 자녀는 14.4%이다[1]. 이처럼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나, 매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부모의 국적, 언어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5].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었고,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6]. 이러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술이나 담배, 폭력, 성경험 등 여러 비행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적인 욕구가 강해져 올바른 성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2005년 4.8%에서 2019년 5.9%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8],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면서 청소년들의 성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9,10]. 이에 따라 청소년의 임신, 인공유산, 성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성교육이 중요하다[10,11].

성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 취학하기 전부터 부모가 먼저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12].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초, 중등학교에서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여[11]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에서 유사한 성교육을 받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이 부모에게 성 관련

교육을 받거나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는 0~27%로 다양하였다[10,13,14]. 또한, 부모의 성교육은 자녀의 성행동이나 성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에 소극적이게 되고, 적절한 교육이나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3] 가정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성행태를 확인하여 가정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경험이 일반가정 청소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15-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성 경험률이 더 많고[15-17], 성 경험 시기가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음주경험이 더 많고[17],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 위험이 높게 나타나[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경험이 정신건강이나, 문제행동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피임 실천이나 시행하는 피임 방법 자체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고, 다양한 일반적 특성과 성관계 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층별, 집단별로 층화하여 조사한 대표성을 띤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국가자료[18]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 피임 실천, 피임 방법 등 성행태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를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18] 빅데이터 자료를 이차 분석한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의 중1~고3 학생이다.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60,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제 온라인 조사에서는 총 57,303명이 참여하였다[18].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9년 4월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대상자만을 추출하였다. 부모의 국적 문항은 문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해당 문항 조사에 동의한 학생만 응답하도록 하였다[18].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총 749명이었다.

2.3 측정항목 및 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15th KYRBS) 자료를 이용하였다[18].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교구분(중학교, 고등학교), 학년(1, 2, 3학년), 학업성적, 경제상태, 거주형태,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 평생 음주 경험, 평생 흡연 경험에 관한 원시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18].

본 연구에서 성행태는 성관계 경험, 피임 실천, 피임 방법, 학교에서 성교육 변수를 이용하였다. 성관계 경험은 '성관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성관계를 해 본 적이 있다', '성관계 경험이 없다'로 측정하였다. 성관계 경험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임 실천과 피임 방법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피임 실천은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 문항에 '항상

피임을 했다', '대부분 피임을 했다', '가끔 피임을 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로 측정하였다. 피임 방법은 '주로 사용한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먹는 피임약', '콘돔',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날짜피임법)',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자궁내장치(루프)' 중에서 주된 방법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에서 성교육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인 있습니까?' 문항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로 측정하였다[18].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자료(raw data)에서 자료정제(논리적 오류, 이상치 처리), 가중치 생성, 층 통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제공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8]. 모든 자료는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lpha = .05$ 의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시 통합층(strata), 가중치(weight), 집락변수(cluster), 등확률 비복원추출방법(FPC)을 적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 일반적 특성과 성행태는 복합표본 빈도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는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49.3%)와 여자(50.7%)의 비율과 중·고등학교 학년별 비율은 유사하였으나, 고등학생(36.3%)에 비해 중학생(63.6%)이 더 많았다. 최근 12개월 동안의 학업성적은 '중하'(28.3%), '중'(26.5%), '중상'(21.3%)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학업성적을 '중'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도 '중'(47.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93.1%)가 가장 많았으나,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3.0%로 나타났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느낀다'(36.7%)가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느낀다'(27.8%), '별로 느끼지 않는다'(16.7%), '대단히 많이 느낀다'(15.5%), '전혀 느끼지 않는다'(3.3%)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6.3%, 지금까지 일반담배(권련)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9%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7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58	49.3
	Female	391	50.7
Grade	Middle school		
	1st	212	25.8
	2nd	175	19.6
	3rd	136	18.4
	High school		
	1st	81	12.8
Academic achievement	2nd	73	11.7
	3rd	72	11.8
	Very high	66	10.1
	Upper middle	156	21.3
	Middle	223	26.5
Economic status	Low middle	211	28.3
	Very low	93	13.8
	Very high	57	8.8
	Upper middle	135	18.3
	Middle	381	47.9
Residential area	Low middle	142	20.2
	Very low	34	4.8
	With family	704	93.1
	With relation	5	0.5
	Boarding or self-boarding	4	0.8
Perceived stress	Dormitory	19	2.5
	Facility	17	3.0
	Very much	106	15.5
	Much	203	27.8
	A little	283	36.7
Ever drinking	Little	130	16.7
	Not	27	3.3
Ever smoking	No	501	63.7
	Yes	248	36.3
	No	658	86.1
	Yes	91	13.9

Note. n=unweighted, %=weighted.

3.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

소년은 8.2%로 나타났다.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았다'(3.8%)가 가장 많았고, '항상 피임을 했다'(3.3%), '대부분 피임을 했다'(0.6%), '가끔 피임을 했다'(0.5%)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콘돔(4.0%)이 가장 많았으며, 월경주기법(날짜피임법)(0.2%), 자궁내장치(루프)(0.1%), 먹는 피임약(0.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포함) 성교육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4%로 높았으나, '없다'는 응답도 21.6%로 나타났다.

Table 2.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 in a multicultural family

Variable	Categories	n	%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No	698	91.8
	Yes	51	8.2
Contraceptive practice	Always	23	3.3
	Often	4	0.6
	Rarely	3	0.5
	Never	21	3.8
	N/A	698	91.8
Method of contraception	OC	2	0.1
	Condom	26	4.0
	Rhythm method	1	0.2
	IUD(loop)	1	0.1
	N/A	719	95.6
Sex education in the past 12 months	No	157	21.6
	Yes	592	78.4

Note. n=unweighted, %=weighted, N/A=Not applicable
OC=Oral contraceptive Pills; IUD=Intrauterine device.

3.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계 경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구분($\chi^2=29.86$, $p<.001$), 학업성적($\chi^2=26.81$, $p<.001$), 경제상태($\chi^2=29.63$, $p<.001$), 거주형태($\chi^2=136.46$, $p<.001$),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chi^2=22.45$, $p<.001$), 평생 음주 경험($\chi^2=47.67$, $p<.001$), 평생 흡연 경험($\chi^2=53.76$, $p<.001$)에서 Table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구분에서는 고등학생(68.4%)이 중학생(31.6%)보다 성관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9.86, p<.001$). 학업성적은 중하(31.2%)인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26.4%), 하(18.3%), 중(12.3%), 중상(11.8%) 순으로 성관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6.81, p<.001$). 경제상태에서도 중(27.5%), 중하(22.9%)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22.0%), 중상(14.3%), 하(13.3%) 순으로 성관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9.63, p<.001$). 거주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66.1%)이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원)(24.9%), 하숙, 자취(친구들과 같이 사는 경우 포함)(6.0%), 친척집(2.0%), 기숙사(1.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36.46, p<.001$).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에서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청소년(33.9%)이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았고, '조금 느낀다'(31.2%), '별로 느끼지 않는다'(16.3%), '많이 느낀다'(2.4%), '전혀 느끼지 않는다'(6.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2.45, p<.001$). 평생 음주 경험에서는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청소년(76.9%)이 없는 청소년(23.1%)보다 성관계 경험이 높았다($\chi^2=47.67, p<.001$). 그러나 평생 흡연 경험에서는 지금까지 일반담배(권련)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없는 청소년(55.1%)이 있는 청소년(44.9%)보다 성관계 경험이 높았다($\chi^2=53.76, p<.001$).

Table 3. Differences in experience sexual intercours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ence sexual intercourse		χ^2 (p-value)
		No	Yes	
Gender	Male	48.9%	53.9%	0.57 (0.488)
	Female	51.1%	46.1%	
Grade	Middle school	66.6%	31.6%	29.86 ($<.001$)
	High school	33.4%	68.4%	
Academic achievement	Very high	8.6%	26.4%	26.81 ($<.001$)
	Upper middle	22.2%	11.8%	
	Middle	27.8%	12.3%	
	Low middle	28.1%	31.2%	
	Very low	13.3%	18.3%	

Economic status	Very high	7.6%	22.0%	29.63 ($<.001$)
	Upper middle	18.7%	14.3%	
	Middle	49.7%	27.5%	
	Low middle	19.9%	22.9%	
	Very low	4.1%	13.3%	
Residential area	With family	95.6%	66.1%	136.46 ($<.001$)
	With relation	0.4%	2.0%	
	Boarding or self-boarding	0.4%	6.0%	
	Dormitory	2.6%	1.0%	
	Facility	1.0%	24.9%	
Perceived stress	Very much	13.9%	33.9%	22.45 ($<.001$)
	Much	29.2%	12.4%	
	A little	37.2%	31.2%	
	Little	16.7%	16.3%	
	Not	3.0%	6.2%	
Ever drinking	No	67.3%	23.1%	47.67 ($<.001$)
	Yes	32.7%	76.9%	
Ever smoking	No	88.9%	55.1%	53.76 ($<.001$)
	Yes	11.1%	44.9%	

Note. %=weighted.

4.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행태 실태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들을 위한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은 8.2%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대상자는 피임을 항상 한다는 대상자보다 많았다. 피임 방법은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청소년 대부분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성관계 경험은 학년, 학업성적, 경제상태, 거주형태, 스트레스, 평생 음주 및 흡연 경험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은 8.2%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3.2%~11.1%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15-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성관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5-17]. 국내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3], 특히 사춘

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성장발달의 이해에 대한 교육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0]. 주변 선진국의 실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자녀의 위험한 성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피임 실천은 본 연구결과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항상 피임을 한다는 청소년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콘돔이었다. 2007~2009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국내 청소년 중 항상 피임을 하는 경우는 24~27% 정도였고, 피임방법 중에서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국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럽, 캐나다, 이스라엘의 14~16세 청소년들은 마지막 성교 시 피임을 한 경우가 81.3%이었고[23], 미국의 가족성장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SFG)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5~19세 청소년의 피임을 조사한 결과, 첫 성경험에서 피임을 한 경우는 81%, 마지막 성교 시 피임을 한 경우는 89.9%이었다[24]. 이처럼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피임 실천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청소년의 피임실천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피임 방법 중, 콘돔은 성병과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24]. 2007~2013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병 발병률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은 7.4%, 여자 청소년은 7.5%가 성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국내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공임신중절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확하게 피임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6]. 그러므로 피임을 항상 하도록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임을 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피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 최근 1년 내 성교육을 들은 경험은 본 연

구결과, 들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78.4%로 대부분이었으나, 들은 적이 없는 대상자도 21.6%이었다.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1], 성교육을 듣지 않은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성교육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연하게도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성경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27]. 하지만 이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85.3%가 학교에서의 성교육 만족도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고[10], 한국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88%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해 불만족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26]. 따라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다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따라 이중문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3],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성교육이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업성적은 '중하'인 경우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성경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 남학생은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이 학업성적이 '중'인 학생보다 성경험 위험이 높아졌으나, 여학생은 학업성적과 성경험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거주지별 고등학생의 성경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만 학업성적이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다양한 결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업성적과 성관계 경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상태는 본 연구결과 '중'인 경우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 상태가 '중'보다 '상'인 경우 성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성경험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경제상태가 '상'일 때, 여학생은 '하'일 때 성경험 위험이 가장 컸다[28].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제상태를 측정할 때 응답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경제상태를 해석하여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월평균 소득, 건강보험료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 성관계 경험이 가장 높았다. 국내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은 부모, 교우간, 또는 선생님과 의 갈등, 경제사정, 학업성적문제, 건강문제나 외모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원인 중 교우간 또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성교육 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교육해야 됨을 시사한다.

거주형태는 본 연구결과 가족과 함께 살거나, 보육 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우 성관계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포함한 국내 청소년의 성경험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특히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성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27,28],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 다른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원과 감독이 낮으면 비행 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7]. 이는 단순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에 대한 관심 등이 자녀의 성관계 경험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느끼거나[6], 부모 자식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2,3], 다문화가정의 부모 유형이나, 양육태도 등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성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음주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관계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음주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1,17,22,27]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성경험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음주 후 성경험률은 50.8%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음주 후 성경험을 할 가능성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특히 청소년의 음주 후 성경험은 약물사용, 위험성행동과 연관이 있으므로[3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음주 습관을 변화

시키는 것은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평생 흡연 경험은 본 연구결과 평생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성관계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성관계 경험에 따른 국내 청소년의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흡연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1,17,22,27]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출생국가에 따른 건강위험행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출생국가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경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몽골과 중국인 경우 현재 흡연의 비율이 높았다[31].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출생국가에 따라 흡연이나 성행동과 같은 건강위험행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출생국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국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행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은 8.2%이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대상자는 피임을 항상 한다는 대상자보다 많았고, 피임 방법은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은 최근 1년 내 학교에서 성교육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성관계 경험은 고등학생인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행태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성교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제외되어 추후에는 이들을 포

함한 연구가 진행되길 제언한다. 또한 부모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인지하는 성 관련 요인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9). *An investigation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2] S. J. Kang & S. M. Sohn. (2011). A case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erception of fou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with infa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6), 161-188.
- [3] S. H. Song & H. J. An. (2011).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2), 167-179. DOI : 10.12934/jkpmhn.2011.20.2.167
- [4] W. J. Lee & S. Kim. (2014). Study of multicultural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367-1374. DOI : 10.5762/KAIS.2014.15.3.1367
- [5] K. H. Kim, J. H. Yi & H. M. Hong. (2013). Rethinking immigration, remaking identities: exploration of ethnic identity among the immigrant adolescents and the adolescents born in marital-immigrant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44(1), 165-192.
- [6] S. H. Han. (2015).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and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youth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7] W. K. Lee, H. E. Yu & C. H. Lee. (201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74, 65-90.
- [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Retrieved May 5, 2019,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56&vw_cd=MT_ZTITLE&list_id=117_11758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9] B. S. Hong & M. A. Nam. (2012). Effects of exposure to internet phonography on sexual assault and prostitu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0, 9-39.
- [10] Y. K. Yang. (2012).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need for sex educ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8(3), 159-169. DOI : 10.4069/kjwhn.2012.18.3.159
- [11] J. W. Yoon, R. I. Hwang & M. K. Lim.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experience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by residential areas : using data from the 10th (2014)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5), 2733-2750.
- [12] E. K. Lee & Y. B. Kim. (2017) The development and effects analysis of a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Women's Studies*, 27(1), 143-182.
- [13] Y. J. Kim & C. S. Lee. (2005). The effects of parents' sexual education on adolescents' sexu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2), 250-268.
- [14] E. H. Park. (2017).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exuality and direction of sex education in adolescents : focusing on gender-sensitive sex educ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 24(10), 365-386.
DOI : 10.21509/KJYS.2017.10.24.10.365
- [15] H. J. Lee & G. J. Lee. (2019). Suicidal behaviors of culturally diverse adolescents with sexual experience: using data from the 10~12th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8(3)*, 205-215.
DOI : 10.12934/jkpmhn.2019.28.3.205
- [16] S. J. Nam. (2015). Differences in sexual experiences between general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 verifying regulation effects of fathers' education and sex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ciation, 27(1)*, 1-12.
- [17] S. H. Lee, J. H. Yoo, M. E. Yun & S. S. Chun. (2015). Correlate of the drinking behavior and sexual experience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6(2)*, 45-57.
- [18]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The 15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9*. Retrieved January 1, 2020, from <http://www.cdc.go.kr/yhs>
- [19] B. S. Lee, J. S. Kim & K. S. Kim. (2013). Factors that affec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1)*, 64-75.
DOI : 10.5932/JKPHN.2013.27.1.64
- [20] H. S. Lim. (2017).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on educational need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2)*, 202-214. DOI : 10.5392/JKCA.2017.17.12.202
- [21] T-C. E. and A. T. Vazson. (2009). Risky sexual behaviors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Hispanic immigrant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5)*, 719-731.
DOI : 10.1007/s10964-008-9369-5
- [22] H. J. Lee & H. S. Kang. (2011). Rates and methods of contracep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from 2007 to 2009.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2)*. 148-156. DOI : 10.4069/kjwhn.2011.17.2.148
- [23] M. de Looze, A. S. Madkour, T. Huijts, N. Moreau & C. Currie. (2019). Country level gender equality and adolescents' contraceptive use in Europe, Canada and Israel: findings from 33 countrie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51(1)*, 43-53. DOI : 10.1363/psrh.12090
- [24] J. C. Abma & G. M. Martinez. (2017).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use among teenagers in the United States, 2011-2015.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 104*, 1-23.
- [25] S. Y. Lee, H. J. Lee, T. K. Kim, S. G. Lee & E. C. Park. (2015).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first sexual intercourse age in adolescents: the nationwide retrospective cross sectional study.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2(12)*, 2313-2323. DOI : 10.1111/jsm.13071
- [26] I. S. Lee, E. H. Park & J. J. Lee. (2006). A survey of attitude toward sex of unmarried women in South Korea.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49(1)*, 157-167.
- [27] E. Y. Lee.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3)*, 624-634.
DOI : 10.5392/JKCA.2019.19.03.624
- [28] G. Y. Lee. (2016). Sexual behaviors and sexual experience of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71-80.
DOI : 10.5762/KAIS.2016.17.12.71
- [29] H. S. Park, J. H. Yu & B. Y. Park.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8(5)*, 771-777.

[30]A. Oshri, J. G. Tubman & M. L. Burnette. (2012). Childhood maltreatment histories, alcohol and other drug use symptoms, and sexual risk behavior in a treatment sample of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S2)*, S250-S257.

DOI : 10.2105/AJPH.2011.300628

[31] K. S. Jun & M. K. Song. (2011). A research on the differences of adjustment level by multicultural children's nationa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1)*, 305-330.

손예동(Yedong Son)

[정회원]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학사)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석사)
- 2017년 2월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박사)
- 2017년 4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여성암, 유전, 성
- E-Mail : ydson@woosuk.ac.kr

최혜선(Hye-Seon Choi)

[종신회원]



- 2007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석사)
- 2012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건강증진, 스트레스, 산업안전&위생
- E-Mail : hschoi@woosuk.ac.kr